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3월 29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신명기 19장 1-5절

설교제목 : “생명을 존중하라”

오늘 본문은 신명기 법전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법전의 내용은 십계명 해설서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따라서 십계명 해설서란 의미는 십계명의 영성의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어떻게 각 시대에 맞게 상황화시켜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신명기 법전은 원래 이스라엘의 공동체 규율입니다. 가나안이란 무대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생활의 지침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신명기 법전을 우리 사회의 무대 안에서 이해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상황과 시간 속에서 신명기 법전을 상황화시켜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가운데 제 6계명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신명기 법전에서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신명기19:1-22:8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저자는 신 19:1-22:8까지 다양한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살펴보고자 우선 도피성 제도를 봅시다. 도피성이란 어떤 곳입니까? 부지중에 살인을 했을 때, 그 보복자가 복수하여 무고한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 장치입니다.(5절)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러한 도피성이 6개가 세워지게 되었고, 여호수아 20장에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결국 도피성제도가 보여주는 제 6계명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의 핵심적인 가치는 생명을 존중하라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가치를 신명기 저자는 자신의 상황에 잘 풀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9:1-22:8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인간의 생명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회적 구조의 문제와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영역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선, 신명기 19:14을 보게 되면,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대근동사회에서 개인이나 국가의 땅의 경계를 나타낼 때, 돌무더기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땅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돌을 옮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의 땅을 빼앗는 경우나 부자가 더 많은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땅을 탐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결국 남의 생존권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6계명을 가나안 무대에 상황화시킨 제도입니다. 따라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가나안 삶의 자리에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터전을 빼앗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6계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와 경제 정의를 포함합니다. 또한, 신명기 20장 5-8절의 내용을 보면, 국가전쟁 시에도,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다면,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전쟁을 하더라도, 개인의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 대의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잘 조화하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은 국가의 유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신20:5-8의 내용은 개인의 행복권을 강조하는 것(5, 6, 7절)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협하는 요소를 함께 주의하라(8절)는 이중적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22:6-7을 보면, 새의 보금자리에 알과 새끼들과 함께 있는 어미 새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미새를 취하면 알을 낳을 수 없어

서, 종족번식이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법전의 6계명의 해설은 심지어 동물의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계명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가치는 자연의 생명까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태계를 손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연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탐욕과 교만으로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결국 코로나 19가 주는 교훈은 생태계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제 6계명의 무시한 재앙입니다. 신22:7에서 ‘복을 누린다’는 말쑤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면 할수록 인류는 더 일찍 파멸되어갈 것입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6계명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회적 제도로 생명을 존중하는 세상입니다. 약자들을 위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세상입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이 함께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상생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6계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생명운동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의 실천적 삶입니다. 코로나 19는 우리가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국가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인간이 자연을 보호할 때, 자연은 인간을 보호합니다. 내가 탐욕과 오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 상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6명의 생명을 존중하는 삶이란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이 기반이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6계명의 온전한 실천자가 되길 바랍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제 6계명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십계명의 영성을 상황화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 2)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 3) 국가적 대의와 개인의 행복권을 잘 조화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4)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께서 6계명을 통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신19:1에서부터 신22:8의 내용을 읽고, 주일 설교에서 다루지 않는 본문을 묵상하고, 그 본문이 주는 의미가 살펴봅시다. 그리고 묵상한 것을 가족, 혹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4)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